



# 모유수유 영아모의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 및 관련요인

## -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참가자를 중심으로 -

이 화 자<sup>1)</sup> · 김 영 혜<sup>1)</sup> · 조 영 란<sup>2)</sup>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모유는 초유에서 성숙유에 이르기까지 아기의 요구에 따른 성장 발육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하고 있는 가장 적합한 영양공급원이며,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면역성분도 함유되어 인공유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질적으로 우수하다(김기남, 현대선 및 강남미, 2002). 또한 모유수유는 아기에게 엄마의 사랑을 제공하여 심리적으로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원만하고 건강한 인격형성과 개인적으로 건강한 미래의 삶을 형성하게 하는 바탕이 되고, 산모에게는 아기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게 하여 모아 상호관계를 증진시키고, 산후회복을 촉진시키는 물론 산욕기 우울증을 감소시키며, 자궁암이나 유방암, 골다공증 등의 질병 발생도 감소시켜 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대한간호협회, 1996; 이선옥, 정은순, 안숙희, 문길남 및 박남희, 2003).

다른 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부터 모유수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어 모유수유율이 유럽 75%, 미국 52%, 일본 45%로 증가됨을 보이고 있는 반면(유엔아동구호기금, 1999), 우리나라는 꾸준히 모유수유를 권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80년대 48.1%, 90년대 14.1%, 2000년대 10.2%(김승권, 2000)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모유수유를 통한 애착관계 파악이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다.

모유수유 어머니에게 엄마의 사랑과 보호본능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모아상호작용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애착은

모아 사이의 사랑의 끈 혹은 정서적 유대를 의미하며, 모아간의 충분한 애착형성에는 어머니의 기본적인 양육행동인 수유하기, 앉아주기, 옷 입히기, 만져주기, 목욕시키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등의 신체적 돌봄활동이 필요하다(김영혜, 이화자 및 김순구, 2001).

바람직한 애착형성을 위해서는 모아상호간의 역할수행이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부모들은 양육행동에 대한 민감성과 수용적인 태도로 영아의 욕구나 희망을 인지한 후에 말로써 표현해주고 이들 욕구를 기꺼이 해결해 주려는 양육태도를 가짐으로서 양육과정에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 모아간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되게 된다. 그러므로 모아애착행동은 어머니가 다정하고 세심하며 아기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발달되고 영아와 함께 보낸 시간의 양보다 양육의 질이 애착의 강도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Cassidy & Shaver, 1999; Slater & Muir, 1999; Wong, Hockenberry-Eaton, Wilson, Winkelstein & Schwartz, 2001).

모아의 애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모아간의 지속적인 접촉이 중요하고, 모유수유를 통한 만족감으로 어머니와 아기는 밀접하게 되며, 돌봄의 질이 향상되기도 하고, 아동의 욕구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이 빈번함에 따라 밀접한 접촉이 증가한다. 또한 자주 접촉하고 안아주고 눈을 마주침으로써 애착이 형성되며, 어머니는 아기를 더 가까이 볼 수 있고, 아이의 반응을 관찰할 수 있다(Bloom, 1981; Klaus & Kennell, 1982).

모아상호작용이 가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유수유시간은 어머니와 영아가 의사소통하기에 적절하지만, 모아가 각각의 독립된 행동을 나타냄에 따라 모아상호작용이 잘 이루어

주요어 : 모유수유, 애착, 양육행동

1) 부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 부산대학교 간호학과 강사, 간호과학연구소 연구원(교신저자 E-mail: youngrancho@yahoo.co.kr)

투고일: 2004년 12월 28일 심사완료일: 2005년 3월 15일

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영아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자신들의 부속된 인격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정춘미 와 김미예, 2001; 환경자, 1991).

모아의 애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모유수유, 임신의도, 영아모의 연령, 영아의 성별, 접촉시기 등이 있다(김영혜 등, 2001; 심정하, 1997; 이자형 과 김진향, 1981).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결과들이 일치하지 않으며 상반되는 경우도 있어 반복연구가 필요하고, 또한 인생초기 신뢰감과 안전감이 형성되는 영아기의 모유수유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모아애착에 필수적인 양육행동과 관련된 요인에 대해 연구한 논문은 드문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유수유 영아모를 대상으로 모아의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정도를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하여 모유수유 어머니의 개별특성에 맞는 애착증진 간호중재 프로그램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하였다.

##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영아모와 영아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영아모의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의 정도를 파악한다.
- 영아모와 영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의 차이를 파악한다.

## 연구 방법

### 연구설계

본 연구는 모유수유 어머니의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03년 9월 24일 부산시 간호사회 주최의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참가한 만 5개월에서 7개월 영아모 중 연구목적에 동의한 155명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부산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15개 보건소에 설문지를 비치하여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참가신청을 한 어머니가 직접 작성한 후 부산시 간호사에서 접수하고 회수하였다.

### 연구도구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도구는 김영혜 등(2001)이 만 5개월에

서 7개월의 모유수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면담하여 개발하였으며, 도구개발 당시에는 17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간호학 교수 2인과 신생아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임상간호실무자로 이루어진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7문항을 삭제하여 10문항으로 축소하였으며, 긍정적인 문항이 6개, 부정적인 문항이 4개(역으로 계산함)로 '매우 그렇다'를 3점, '대체로 그렇다'에 2점,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합산하고, 점수범위는 10점- 3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모의 애착지향적 양육행동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영혜 등(2001)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0$  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 .73$ 이었다.

##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영아모와 영아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파악하였다.
- 영아모의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의 정도는 평균 평점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영아모와 영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ANOVA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각 집단에 대해 Turkey검정을 실시하였다.

## 연구 결과

### 연구대상자와 영아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26-29세가 49.0%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대졸이상이 52.3%였으며, 직업은 없는 경우가 91.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가족월수입은 100~200만원 미만이 68.4%로 가장 많았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81.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양육도움제공자로는 남편이 58.1%로 가장 많았으며, 분만형태는 정상분만이 65.2%, 제왕절개가 34.8%를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모유수유 관련 특성으로 모유수유 기간은 5개월인 경우가 55.5%로 가장 많았고, 앞으로의 수유 계획기간에 대해서는 12개월까지인 경우가 51.0%, 아기가 원할 때까지인 경우가 30.3% 순이었으며, 모유수유교육 및 정보제공원은 책자가 41.3%로 가장 많았다<표 1>.

영아의 성별을 보면 남자는 60.0%, 여자는 40.0%였으며, 월령은 5개월인 경우가 45.1%로 가장 많았으며, 출생순위는 첫째인 경우가 61.9%로 가장 많았고, 체중은 9.1kg이상인 경우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55)

특성	구분	실수(%)
연령	25세이하	10( 6.5)
	26-30세	76(49.0)
	31-35세	60(38.7)
	36세이상	9( 5.8)
학력	고졸이하	74(47.7)
	대졸이상	81(52.3)
직업	유	13( 8.4)
	무	142(91.6)
가족월수입	100만원미만	6( 3.9)
	100-200만원미만	106(68.4)
	200만원이상	43(27.7)
가족형태	핵가족	126(81.3)
	대가족	29(18.7)
양육도움제공자	남편	90(58.1)
	시어머니	27(17.4)
	친정어머니	14( 9.0)
	기타	24(15.5)
분만형태	자연분만	101(65.2)
	제왕절개분만	54(34.8)
모유수유기간	5개월	86(55.5)
	6개월	51(32.9)
	7개월	18(11.6)
수유계획기간	8개월까지	12( 7.7)
	9-10개월	17(11.0)
	11-12개월	79(51.0)
	아기가 원할때까지	47(30.3)
모유수유 교육 및 정보제공원	책자	64(41.3)
	매스컴	15( 9.7)
	출산준비교실	31(20.0)
	의료인	9( 5.8)
	기타	36(23.2)

가 35.3%, 8.1-9.0kg인 경우가 34.0%, 8.0kg이하인 경우가 30.7%순 이었으며, 신장은 69cm이하가 64.7%, 69cm이상인 35.3%였다<표 2>.

연구대상자의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의 정도

〈표 3〉 연구대상자의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의 정도

내용	평점 ±표준편차
아기가 울어서 젖을 주려 할 때 먼저 말로써 응대한다	2.63±.512
기저귀를 갈 때 다리를 만지거나 쪽쪽이를 한다	2.77±.420
아기가 잠잘 때를 기다렸다가 집안 일을 한다	2.26±.568
아기의 발달 특성에 대해 기록하고 남편과 대화한다	2.43±.592
아기와 같이 있을 때 이야기하거나 노래한다	2.74±.443
내가 먼저 아기와 놀려고 건드려 본다	2.22±.561
아기가 나와 놀기를 원하여 내가 시달린다*	2.27±.715
집안에서 아기만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 불만이다*	2.85±.413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아기가 크게 울어대면 창피하다*	2.82±.434
아기의 울음이 그치지 않을 때 때리거나 고함을 질러본 적이 있다*	2.88±.360
총 평균	2.59±.502

\* 부정문항임

〈표 2〉 영아의 일반적 특성 (N=155)

특성	구분	실수(%)
성별	남	93(60.0)
	여	62(40.0)
월령	5개월	65(45.1)
	6개월	58(40.3)
	7개월	21(14.6)
출생순위	첫째	96(61.9)
	둘째	51(32.9)
	셋째이상	8(5.2)
체중(kg)	8.0이하	47(30.7)
	8.1-9.0	52(34.0)
	9.1이상	54(35.3)
신장(cm)	69이하	97(64.7)
	69이상	53(35.3)

연구대상자의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점수의 전체문항 평점은 3점 만점에 2.59±.502으로 비교적 높은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을 보였다. 이 중 평균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아기의 울음이 그치지 않을 때 때리거나 고함을 질러본 적이 있다”(2.88±.360), “집안에서 아기만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 불만이다”(2.85±.413),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아기가 크게 울어대면 창피하다”(2.82±.434), “기저귀를 갈 때 다리를 만지거나 쪽쪽이를 한다”(2.77±.420), “아기와 같이 있을 때 이야기하거나 노래한다”(2.74±.443), “아기가 울어서 젖을 주려 할 때 먼저 말로써 응대한다”(2.63±.512)이었고, 평균 이하의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내가 먼저 아기와 놀려고 건드려 본다”(2.22±.561), “아기가 잠잘 때를 기다렸다가 집안일을 한다”(2.26±.568), “아기가 나와 놀기를 원하여 내가 시달린다”(2.27±.715), “아기의 발달 특성에 대해 기록하고 남편과 대화한다”(2.43±.592)이었다<표 3>.

연구대상자와 영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의 차이

〈표 4〉 연구대상자와 영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의 차이

(N=155)

특성	구분	애착지향적 양육행동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연령	25세이하	25.00±2.45	.90	0.445
	26-30세	26.00±1.98		
	31-35세	25.95±2.51		
	36세이상	25.11±3.37		
학력	고졸이하	25.32±2.40	-2.84	0.005
	대졸이상	26.37±2.12		
직업	유	26.15±2.38	.47	0.639
	무	25.84±2.31		
양육도움제공자	남편	26.07±2.30	2.03	0.093
	시아머니	26.04±1.91		
	친정어머니	26.29±1.64		
	기타	24.56±2.76		
분만형태	자연분만	25.78±2.48	-.61	0.546
	제왕절개분만	26.02±1.97		
모유수유기간	5개월	26.07±2.23	1.11	0.332
	6개월	25.47±2.45		
	7개월	26.00±2.30		
수유계획기간	8개월까지	25.33±2.39	3.03	0.032 C < D
	9-10개월	25.29±2.66		
	11-12개월	25.58±2.25		
	아기가 원할때까지	26.68±2.13		
모유수유 교육 및 정보제공원	책자	26.00±2.27	.12	0.975
	매스컴	25.73±2.74		
	출산준비교실	25.71±2.56		
	의료인	26.00±1.94		
	기타	25.78±2.17		
성별	남	25.65±2.50	-1.52	0.131
	여	26.19±1.98		
월령	5개월	26.03±2.42	.61	0.544
	6개월	25.84±2.35		
	7개월	25.38±2.09		
출생순위	첫째	26.08±2.23	2.00	0.138
	둘째	25.35±2.46		
	셋째이상	26.50±2.00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력이 대졸이상( $t=-2.84, p=.005$ ), 앞으로의 수유 계획기간이 아기가 원할 때까지( $t=3.03, p=.031$ )에서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이를 Turkey검정한 결과 아기가 원할 때까지인 경우가 11-12개월인 경우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양육도움제공자가 친정어머니인 경우와 영아가 여아, 출생순위가 셋째이상인 경우에서 양육행동 점수가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다<표 4>.

## 논 의

본 연구에서 모유수유 어머니를 대상으로 모아의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정도를 확인해본 결과 전체문항 평점이 최대 3

점 만점에 2.59±.502로 비교적 높은 애착지향적인 양육행동을 보였다. 이는 김영혜 등(2001)의 모유수유아 어머니의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의 전체항목평점이 최대 4점 만점에 3.5인 것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또한 같은 도구를 이용한 이화자(2003)의 최대 3점 만점에 2.00과 비교해 보면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개 지역 간호사회 주최의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참가할 정도로 생활태도가 적극적인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추후에는 다른 지역의 전체 모유수유 어머니를 대상으로 반복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의 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특성을 보면 학력과 수유계획기간이었다.

먼저, 어머니의 학력에서 대졸이상의 양육행동이 고졸이하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서적이나 매스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정보나 지식의 습득이 용이하기 때문에 모아간의 상호작용이 증진되어 애착을 증진시키는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앞으로의 수유계획기간에 따른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은 “아기가 원할 때까지”에서 11-12개월인 경우보다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Cassidy와 Shaver(1999)의 모아 애착행동은 영아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보다 양육의 질이 애착의 정도를 결정한다는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어머니의 연령이 양육행동과 관련없다는 이자형(1996), 심정하(1997), 이화자(2003)의 연구와는 일치하나 Zahn(1993), 김영혜 등(2001)의 관련있다는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차후에는 표본수를 좀 더 많게 하여 어머니의 연령과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과의 관련성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분만형태에서는 제왕절개분만인 경우가 자연분만보다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점수가 약간 높았는데, 이는 초산모 93명을 대상으로 분만형태별 모아 상호작용의 차이에서(조미영, 1990) 분만초기에는 자연 분만한 산모가 제왕절개분만한 산모보다 모아 상호작용의 점수가 높았지만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두 집단간의 차이가 없어지며, 산후후기(산후4-6주)에는 제왕절개 분만한 산모가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한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추후연구에서는 산후경과별로 애착행동에 영향을 주는 지 여부와 영향을 주는 경우 어떤 요인들인지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출생순위는 본 연구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김영혜 등(2001)과 이화자(2003)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화자(2003)의 연구에 의하면 둘째아이에서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이 가장 높고 첫째아이에서 가장 낮은 것은 최근 우리나라의 평균출산율이 1.17(통계청, 2003)과 관련되는데 아이를 적게 낳음으로 자녀양육의 경험기회가 줄어드는 것에 기인한다고 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셋째이상에서 가장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사는 산전교육부터 시작하여 산후 자녀양육까지 포괄적으로 대상자의 개별특성에 맞는 문제에 대한 해결 중심으로 교육을 전환해야 하며 애착 지향적 양육방법에 대한 기술도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일반적인 특성과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 관련요인에서 확인된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와 수유계획기간이 “아기가 원할 때까지”에서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반하여 어머니

가 고졸이하이거나 모유수유계획기간이 12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영아와의 애착형성을 위한 간호중재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유추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모유수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애착 증진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이들 변인들을 고려해야 하고, 어머니의 교육에서도 이를 참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모유수유 어머니를 대상으로 모아의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정도를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하여 모유수유 어머니의 개별특성에 맞는 애착증진 간호중재 프로그램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은 2003년 9월 24일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참가한 영아모 155명이었으며, 연구도구는 김영혜 등(2001)의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했으며, 신뢰도 계수는 .73이었다. SPSS WIN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영아모들의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의 정도는 평균평점이 3점 만점에 2.59±.502으로 높은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을 보였다. 그러나 평균 이하의 점수를 보인 문항은 4문항으로 “내가 먼저 아기와 놀려고 건드려 본다”(2.22±.561), “아기가 잠잘 때를 기다렸다가 집안일을 한다”(2.26±.568), “아기가 나와 놀기를 위하여 내가 시달린다”(2.27±.715), “아기의 발달 특성에 대해 기록하고 남편과 대화 한다”(2.43±.592)순 이었다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 정도의 차이는 학력( $t=-2.84, p=.005$ ), 앞으로의 수유 계획기간( $t=3.03, p=.031$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와 앞으로의 수유 계획기간이 아기가 원할 때까지( $t=3.03, p=.031$ )인 경우에서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 점수가 훨씬 높아 영아기의 애착행동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영아모의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된 것은 어머니의 학력과 수유계획기간이었다. 따라서 어머니가 고졸이하 이거나 모유수유계획기간이 11-12개월까지인 경우에는 영아와의 애착증진을 위한 간호중재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참가한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추후에는 다양한 지역의 모유수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 모유수유 영아모의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과 관련된 요인

들의 반복연구를 통하여 모유수유아 어머니의 개별특성에 맞는 애착증진 간호중재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기남, 현대선, 강남미 (2002).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여성들의 수유양상 기초조사,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7(3), 345-353.
- 김승권 (2000). *전국출산력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혜, 이화자, 김순구 (2001).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참가 영아모의 애착 지향적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부모·자녀건강학회지*, 4(2), 1-15.
- 대한간호협회 (1996). 모유수유 실천의 중요성과 대책. *대한간호*, 35(2), 25-34.
- 심정하 (1997). 영아모의 임신의도와 양육태도와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27(2), 454-464.
- 유엔아동구호기금 (1999). *유엔아동구호기금 국가발전백서*.
- 이선옥, 정은순, 안숙희, 문길남, 박남희 (2003). 모유수유실천 예측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9(4), 368-375.
- 이은숙, 서영숙 (1996). 모유수유 강화교육 프로그램이 산모의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영향.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1), 59-75.
- 이자형, 김진향 (1981). 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애착행위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11(2), 9-21.
- 이자형 (1996). 산육초기 초산모의 신생아 양육행동, *아동간호학회지*, 2(1), 5-11.
- 이화자 (2003). 모유수유아 어머니의 애착지향적 양육행동. *한국모자보건학회지*, 7(2), 145-153.
- 정춘미, 김미예 (2001). 모유수유지식 및 태도와 수유시 모아 상호작용. *경북간호과학지*, 5(1), 51-106.
- 조미영 (1990). 초산모의 분만유형별 분만경험에 대한 지각과 모아상호작용 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0(3), 153-173.
- 통계청 (2003).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
- 한경자 (1991). 한국인 영아초기 수유시 모아상호작용 행동형태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1(1), 89-116.
- Bloom, M (1981). The romance and power of breast-feeding. *Birth Fam J*, 8, 575-576.
- Cassidy J, Shaver PR (1999).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Klaus MH, Kennell JH (1982). Parent to infant bonding, setting the record straight. *J Pediatr*, 102, 575-576.
- Slater A, Muir D (1999). *Developmental psychology*, Exeter UK: Blackwell Pub. Co, 360-368.
- Wong DL, Hockenberry-Eaton M, Wilson D, Winkelstein ML, Schwartz P (2001). *Wong's essentials of periatric nursing*, New York: Mosby, Inc.
- Zahr LK (1993). The confidence of latin mothers in the care of their low birth weight infants. *Res Nurs Health*, 16(5), 335-342.

## Attachment-Oriented Caretaking Behaviors and Related Factors in Mothers of Breast-feeding Infants

Lee, Hwa-ja<sup>1)</sup> · Kim, Young-Hae<sup>1)</sup> · Cho, young-Ran<sup>2)</sup>

1)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2) Full-time Researcher, Department of Nursing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Pusan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nd the related factors of attachment-oriented caretaking behavior in mothers who are breast-feeding their infants. **Method:** The subjects were 155 mothers who participated in a healthy breast-feeding contest in the Busan area.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24, 2003, and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10.0. **Results:** The mothers were highly affirmative in their attachment-oriented caretaking behaviors (total mean 2.59±.502 of a possible score of 3). Among the attachment-oriented caretaking behaviors (10 items), the scores for 6 items were higher than the average score and 4 items were lower than the average scor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ttachment-oriented caretaking behaviors according to level of education ( $p<0.05$ ), and planned duration of breast-feeding ( $p<0.001$ ). Mothers

with university education who planned to breast-feed as long as the baby wanted had higher scores. **Conclusions:** The above results suggest that nursing interventions which are individualized and practical are needed to encourage the attachment-oriented caretaking behaviors essential to breast-feeding mothers.

Key words : Breastfeeding, Attachment, Caretaking behaviors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Cho, young-Ran

*Department of Nursing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Pusan National University  
1-10, Ami-dong Seo-Gu, Busan 602-061, Korea  
Tel: +82-51-240-7769 Fax:+82-51-248-2669 E-mail: youngrancho@yahoo.co.kr*